

海外情報

○ 인도, 보조금 삭감 조치

인도 연립정부는 보조금에 대한 장기간의 특별조치가 이 나라의 비료산업에 불안정의 풍토를 조성하였다는 비난에 대응하여 DAP, 과석 및 가리에 새로운 낮은 수준의 보조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인도정부는 또한 질소질비료 부문에서도 이와같은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톤당 Rs 950(\$ 21.25/t)의 수입 DAP에 대한 새로운 보조금은 3월에 실시되었는데 이는 1992년 8월의 인산부문의 통제해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장관측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보조금이 DAP 수입의 이익금이 \$ 165/t c&f나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

DAP 수입업자들의 또 다른 장애는 보조금이 전액 지불되기 전의 시간 지연이다. 보조금의 80% 지불은 물품이 도착한 후에 이루어지며, 그 나머지는 국내시장에서 제품이 판매된 후 지불된다. 그래서 수입업자들의 대부분은 선적시기와 판매일자 사이의 보조금 변화가 나타도록 시간을 끌었다.

새 정권 또한 국내 DAP 생산업자들로부터 환영을 끗지 못했다. 정부는 보조금 지원율 약 28% 삭감하여 보조금 수준을 국내제품 가격인 Rs 2,800/t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수입 인산가격에서 큰 폭의 삭감을 차지하는데 수입 인산가격은 지난해의 \$ 421/t에서 2000/01 계약기간에는 \$ 357t c&f로 하락하였다. 동시에 DAP의 국내 최고가격은 Rs 8,900/t(\$ 199.11/t)으로 상승하였다.

인도의 비료생산업자들은 이러한 상승 때문에 농민들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2년 연속 높은 \$ 180-204/t c&f 사이의 암모니아 가격처럼 낮은 인산가격으로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국하고 계속해서 높은 생산원가에 직면하고 있다고 항의하였다.

\$

염화가리의 경우 새로운 최고 판매가격이 Rs 3,700/t으로부터 Rs 4,255/t으로 상승되었으며 반면에 보조금은 Rs 2,695/t에서 Rs 2,800/t으로 늘어났다.

과석의 소매가격은 정부에 의해서 계속 결정될 것이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Rs 800/t으로부터 Rs 700/t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신정부는 질소질비료 부문에도 적용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요소 생산에 높은 비율로 보상해주는 보유가격체제(Retention Price System)를 검토하고 있다. 이 체제는 많은 비평을 받았고 일부 요소 생산업자들은 그들의 요소 생산능력이 심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몇몇 요소 생산업자들은 특히 값비싼 연료유나 나프타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 현행 체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재고량이 180만톤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보유가격체제는 요소 과잉 생산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비난을 받고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생산능력의 92%를 초과해서 가동하는 모든 국내 요소 생산업체들에게 시행되는 잠정한계 생산량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정부시책에 논평을 하면서 Fertilizer Association of India(FAI) 회장인 Pratap Narayan은 보조금을 줄이고 소비자 가격을 점차적으로 인상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공급원료, 시설 및 수송용역의 가격책정에서 보다 일관성이 있는 접근방법을 채택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그는 “ 인도에서는 원료가격이 수출국들의 가격보다 몇배 더 비싸다 ”라고 말했다.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보조금의 증가는 단지 국내경제의 이동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부소유 유류부문 및 대리점의 공급량과 용역의 수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Narayan 회장은 비료공업을 위하여 보다 일관성 있는 장기 정책을 채택하도록 정부에 촉구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면적인 규제해제를 반대하였다.

“ 1990년대에는 비료산업이 여러 가지 결정속에서 임기응변으로 대처되었다. 이는 불안정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정부는 농민들이 비료사용을 늘리도록 지속적인 자극제를 제공하게 되는 명확하고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동시에 진전하고 비료산업의 발전

~~~~~

을 도모해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또한 가격에서 이익이 더 오르면 저항에 부딛치는 것을 고려할 때 가까운 장래에 전면적인 규제해제는 실현되지 않을 것 같다. 선진국에서조차도 농업에 보조금을 주어 농민들로 하여금 고 수익을 올리도록 하고 있는데 농민들과 곡물 소비자들이 가난한 상태인 인도에서 보조금 철폐를 운운하는 것을 참으로 역설적이다

< Fertilizer International No. 377 July-August 2000 >

### ○ 파키스탄, Park-Saudi 비료회사 매각 예정

파키스탄의 민영화위원회는 이 나라 최대의 국영 비료생산업체인 Park-Saudi Fertilizer의 과반수 주식을 매각하기 위한 예비자격 입찰을 접수하였다. 입찰 마감일은 7월 17일이었다. 그런 다음 동 위원회는 예비자격을 갖춘 업체들에게 확정입찰을 위한 요망사항이 적힌 서류를 발행할 것인바 이에 대한 입찰서류는 9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매각은 2000년 후기 또는 2001년 초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개스 공급계약과 노조의 동의 확보 문제점 등 몇가지 해결해야 할 사안이 남아 있다.

1991년도에 있었던 Park-Saudi 민영화 기도는 노조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Park-Saudi는 파키스탄 남서쪽 Mirpur Mathelo에 557,000톤의 요소 및 320,000톤의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공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융자로 1980년에 설립되었다.

< Fertilizer International No. 377 July-August 2000 >

### ○ IFA, UNEP 선언 지지

IFA는 5월 23일 오슬로 년차총회에서 UNEP의 청정공기 생산에 관한 국제선언에 서명함으로써 세계 비료공업에서 청정생산의 전략 수립 및 실천할 것을 약속하였다.

UNEP 선언은 보다 청정한 생산전략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향한 전 세계적인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1998년 10월에 이루어진 것이다.

UNEP는 동 선언에 서명하고 이행함으로써 더욱 청정한 생산에서 공식적으로 약속하고

\$\$\$\$\$\$\$\$\$\$\$\$\$\$\$\$\$\$\$\$\$\$\$\$\$\$\$\$\$\$\$\$\$\$\$\$\$\$\$\$\$\$\$\$\$\$\$\$\$\$\$\$\$\$\$\$\$\$\$\$\$\$\$\$\$\$\$\$\$\$\$\$\$\$\$\$\$\$\$\$\$\$\$\$\$\$\$\$\$\$\$\$\$\$\$\$\$\$\$\$\$\$\$\$\$\$\$\$\$\$\$\$

실천도록 사업체의 사장들, 회사중역들, 정부의 지도자들, NGO 및 지역회사 대표자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IFA 및 그 회원국들은 풍토 변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풍토변화에 관한 UN Framework Convention 회장 Michael Zammit Cutajar는 오슬로에서 주제 발표의 연사이었다. 그는 온실가스 방출 및 그로 인한 대기 및 기후의 영향과 관련된 환경, 경제 및 정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연설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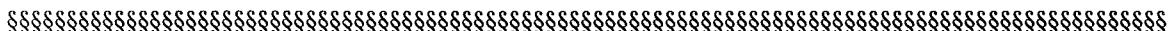
Cutajar 회장은 해수면 상승과 기후 패턴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된 환경영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도록 “ 선견지명 ”이 있는 경제적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였다. 그는 비료공업이 전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2%를 차지하는 에너지 자원의 주된 소비자라고 말했다. 보다 효율적인 생산과 소비 그리고 비화석 연료로의 전환은 부족한 자원의 수요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비료 소비 감소는 있을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질소질 비료는 작물의 영양분에 약 50%를 공급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 음식의 단백질 공급은 암모니아 합성의 Haber-Bosch 처리방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비료의 생산과 소비는 CO<sub>2</sub>와 NO<sub>x</sub>를 발생케 한다. 이것들은 1997년 교토의정서에 포함된 여섯가지 온실가스(GHG) 중 두가지인데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하는 서명국들에게 적용된다. 그밖에도 비료공업은 토양의 탄소분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로써 비료 영양분은 작물성장을 촉진시키고 CO<sub>2</sub>를 흡수하는 작물의 광합성 작용을 높여주며 바이오매스 축적을 증가시키며 건전한 토양유기물질을 생성케 함으로써 탄소를 남기도록 한다.

이와같이 비료공업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GHG 방출의 근원과 집적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Cutajar 회장은 기후변화의 문제점에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비료업계에 강조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것이 고용 증대의 기회를 마련해 주며 새로운 방향에서 소득이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의 장기적 대처방안은 오늘날의 경제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 Fertilizer International No. 377 July-August 2000 >



## ○ EU와 미국, 질산암모늄 관세를 부과

유럽위원회는 이른바 덤핑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우크라이나, 폴란드 및 리트아니아로 들어오는 수입 암모니아에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는 우크라이나 제품에 대해서 약 32-34 유로화/t으로 그리고 폴란드산 수입품은 24-26 유로화/t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트아니아의 질산암모늄은 반덤핑 조치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9개월이 걸렸으며 EFMA으로부터 로비활동이 있은 후 더욱 부추겨졌다. EFMA는 또한 EU에서 팔리는 러시아산 질산암모늄 반덤핑 관세 26.3/t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조치는 8월에 만료된다.

미국에서는 러시아 정부와 미국정부가 타협하여 러시아산 질산암모늄 제품에 반덤핑 관세가 중지되었다. 여기에는 수입량 제한과 최저판매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거래는 러시아 무역부와 미국 상무부가 합의하여 2000년에는 대미 러시아 질산암모늄 수출량이 50,000톤으로 허가하고 2001년에는 100,000톤으로 늘리고 2002년에는 110,000톤, 2003년에는 130,000톤 그리고 2004년에는 150,000톤으로 늘리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물량 증가는 미국정부가 국내 생산업체들로 하여금 앞으로 4년안에 경쟁력을 갖추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의 질산암모늄 최저 수입가격은 85 \$/t c&f로 책정되었다. 기타 보도는 합의된 가격이 85 \$/t fob Yuzhny로서 100 \$/s.ton fob 뉴올리昂즈의 가격이 나오는 것이다. 후자는 있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합의사항에 대한 반응으로서는 무역업자들은 이와같은 물량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측은 미시시피강 수계의 전매자들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은 미국 생산업체들이 판매하는 제품과 경쟁을 하기 위하여 스페인 및 우크라이나산 질산암모늄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생산업체들을 대표하는 Committee of Fair Ammonium Nitrate Trade(COFANT)는 조심스러운 환영으로 이 합의에 대한 반응을 나타냈다. “ 대체로 우리는 러시아의 공급 품에 가격통제를 가져다주는 동 합의를 환영한다 ”라고 회장인 George Porvznik는 말했다. 이 두 케이스는 반덤핑 조치의 중요성을 경감시킨다. EFMA는 특히 구쏘련과 중부유럽 국가 및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이 덤핑되고 있다고 믿어지는 것에 대하여

\$\$\$\$\$\$\$\$\$\$\$\$\$\$\$\$\$\$\$\$\$\$\$\$\$\$\$\$\$\$\$\$\$\$\$\$\$\$\$\$\$\$\$\$\$\$\$\$\$\$\$\$\$\$\$\$\$\$\$\$\$\$\$\$\$\$\$\$\$\$\$\$\$\$\$\$\$\$\$\$\$\$\$\$\$\$\$\$\$\$\$\$\$\$\$\$\$\$\$\$\$\$\$\$\$\$\$\$\$\$\$\$\$\$\$\$\$\$\$\$\$\$\$\$

제재를 하도록 활발한 로비활동을 벌리고 있다.

이 기구는 비료의 자유무역과 공정거래를 추진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러한 조건에서 EFMA가 어떻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 것인가? EFMA 회장 Helmuth Aldinger 박사는 중·동부 유럽과 구쏘련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이 덤핑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덤핑은 그 자체가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덤피ング은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취약의 표시이며 이러한 취약성은 문제점을 직접 나타내는 이른바 덤피ング 회사들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다.

< Fertilizer International No. 377 July-August 2000 >

### ○ 인도 정부, OIFC 요소 매입 약속

좌절과 프로젝트 파트너 사이의 의견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Oman-India Fertilizer Co.(OIFC)의 160만톤 그래뉼 요소 공장단지는 인도 정부가 이 공장의 제품을 15년간 매수하겠다는 계약을 이행한다는 언약이 있은 후 궁극적인 완성을 향하여 중요한 장애물을 뛰어 넘었다. 이 계약은 파트너들 Indian Farmers Fertilizer Cooperative(IFFCO), Krishak Bharati Cooperative(KRIBHCO) 및 Oman Oil Co(OCC)로 하여금 이 사업을 위한 재정적 바탕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Cabinet Committee for Economic Affairs(CCEF)가 매우 보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업에 대한 인도의 참여는 끝났을 것이다.

파트너들은 현재 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본금을 조달하고 있다. IFFCO와 KRIBHCO는 각각 25%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며 OCC는 나머지 주식 50%를 가지고 있다. 추정 자본금은 원래 계획했던 \$ 11억에서 \$ 9억으로 낮추어졌고 이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은 부채/자본금 비율이 2 : 1로 조달될 것이다. 이는 인도측 파트너들이 각각 약 \$ 8천만을 부담하고 반면에 OCC는 \$ 1억6천만의 현금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다. 보다 적은 금액의 추정 자본금은 창고를 개조함으로써 그리고 전력공급의 우발 긴급자금을 전용함으로써 마련될 것이며 반면에 공장구조는 수정되어 2대의 2,530t/d 그래뉼 요소 공장과 두 1,750t/d 암모

////////////////////////////////////////////////////////////////////////////////////////////////////////////////////////////////////////////////////////////////////////////////////////////////////////////////////////////////////////////////////////////////

니아 설비를 갖추게 되었다. Snamprogetti, 프랑스의 Technip 및 Athens에 본사를 둔 Consolidated Contractors Co의 콘서시엄이 이 공장단지 건설공사를 수주하였다.

인도정부의 보증에 힘입어 전체 요소는 약 140 \$/t fob Oman으로부터 약 105 \$/t fob 까지의 가격으로 고정된 내림새 가격으로 IFFCO와 KRIBHCO가 사들이게 될 것이다. 수정된 구조는 또한 잉여 암모니아 물량을 증가하게 할 것이며 이 물량은 계약에 의하여 IFFCO가 매입한다.

15년의 계약은 암모니아 가격을 약 100 \$/t fob Oman으로 결정되었는데 이 가격은 현행 수준인 160 \$ s.ton fob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동반사들은 개스 원료 공급가격을 \$ 0.50/MMBtu로 하고 배송비는 \$ 0.25/MMBtu로 합의하였다.

금융계는 동 프로젝트가 인도의 국내 정치 및 현행의 비료 보조금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우려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합의와 수정된 추정 자본금으로 인하여 동 프로젝트 추진업체들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업으로서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오만에서의 또다른 야심찬 계획은 중동에 대규모의 단일 암모니아 공장과 요소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공장들은 오만의 Sohar 산업단지에 위치할 것이며 2004년에 가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Sohar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되는 개스를 사용하여 2,000t/d 암모니아 공장과 2,600t/d 그래뉼 요소 공장을 건설하여 가동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Oman Trading Group 회장에 의하여 추진되며 다른 파트너들이 이 사업에 참여토록 초청될 것이다. 일괄 턴키방식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서류가 작성되고 있으며 Bahwan은 금년말내로 서류를 발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그룹은 아직 추정 자본금 액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12개 이상의 국제은행과 협의중에 있다. 이 공장의 제품은 아시아, 유럽 및 북아메리카로 나갈 것이다.

< Fertilizer International No. 377 July-August 2000 >

## ○ 중국, 네덜란드의 Stamicarbon과 계약 체결



※※※※※※※※※※※※※※※※※※※※※※※※※※※※※※※※※※※※※※※※※※※※※※※※※※※※※※※※※※※※

대외 공급 여력도 증가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다.

대만 황산암모늄의 수출은 지금까지 년 수만톤 정도 이었으나 CPDC의 카프로락탐 증설에 따라서 황산암모늄 생산도 증대하여 공급면에서 당연히 수출 지향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동남아로 향하는 수출 사업도 점차 활발하게 되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으며 일본업체에게도 대외 수출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 황산암모늄이 카프로락탐의 증산으로 수출 활동을 적극화 한다면, 한때 한국 황산암모늄이 생산 증대로 국내 비수기에 공급 여력이 발생하여 동남아 시장에 저렴한 가격으로 투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일본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일본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0년 9월 6일 >

## ○ TFI 회의, DAP 가격과 중국 비료동향 논의

금년의 미국비료협회(TFI) 국제회의가 10일, 3일간의 일정으로 샌프란시스코 메리엇트 호텔을 회의장으로 하여 개최되었다. 총회에는 미국의 메이커, 비료관련업자 등을 비롯하여 국외의 관련업자들이 다수 참석하였다.

이 총회는 메이커의 독과점체제의 확립, 구주 메이커의 리스트라, 신홍개도국의 비료 생산 진행과 기존의 생산국의 세력이 점차 후퇴하는 와중에 21세기의 세계 비료 정보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눈 여겨 보는 중요한 회의인 것이다.

이 총회에서는 정세 교환에 관해 거론되었다.

첫째는 비료의 국제가격 문제로 특히 미국의 인비(DAP) 시황이 이제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시황은 미국 메이커의 독과점화체제가 궁극적으로 구축되어 고가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보였으나, 수급 변동이나 미국 이외에서의 신규메이커의 등장에 의하여 새롭게 하락하게 되었고, 이 결과 미국 메이커는 더욱이 생산 조정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대책에 의해서 가격은 하락에서 상승세로 전환 되었고 재고량도 감소, 한때 고가 안정화로 향하는 과정으로 접어 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부터 시황은 더욱 향상되고 실제로는 일시적으로 고가로 되는가가 문제로 되고 있다. 요소 시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시황은 장기 저조 지속의 국면에서

수개월간 변화하여 저조에서 수십달러나 상승하여 회복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오래 가지 않았고 최근에는 계속 하락하여 하강커브로 변하였다. 시황의 상승에서 별로 예상치 않았으나 중국산의 수출 진출에 따라 저가로 하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강세 시세가 된 요소 가격에 브레이크가 걸려 또다시 하락 경향이 되었다.

인도네시아산은 금수조치를 명확히 내세웠으나 중국산의 수출 공세로 저가의 가격을 받아 인상 국면은 사라진 것이다. 이로 인하여 황산암모늄등 기타의 질소질비료의 가격 안정화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가격 문제에 있어서는 또한 암모니아 시황의 전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인데 이 시황은 메이커의 장기 생산 휴업과 미국의 원료가스 고가에 의한 생산 중단 등에서 세계 수급이 타이트해졌고 단계적으로 가격 인상을 하였기 때문에 한때 큰 폭으로 상승하여 폭등하게 되었다. 그러나 휴업 재개로 또는 비수기로 인하여 상승에서 하락으로 향하는 기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가격은 또 강세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원료가스의 상승으로 메이커는 코스트 상승에 따라 다시 생산 휴업 가능성이 있으며 수급상 가격상승의 정후가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총회에서는 중국의 비료 수급동향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중국은 금년중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 이 경우 그동안 요소 수입중단에서 금년부터 다시 수입을 재개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견해도 있다.

중국의 요소 수입 재개와는 달리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는 동남아 시장등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WTO에 가입할 경우 실제 요소 수입이 재개될지, TFI에서의 의견 교환이나 견해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밖에 TFI 총회에서는 미국의 추계 비료동향, 인도나 호주의 신규 메이커의 DAP 생산 시작 등에 관해서 어떤 의견이 교환될지 관심이 되고 있다.

< 일본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0년 9월 11일 >